

한국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정부정책의 방향 : 1995년~2020년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서동희¹, 전복선²

¹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University of South Carolina M.S.W. 졸업

A Study on the Changes in Perspectives on Unwed Mothers in S.Korea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ies: 1995~2020 Social Media Big Data Analysis

Donghee Seo¹, Boksun Jun²

¹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²Graduated, University of South Carolina(Master of Social Work)

요약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텍스트롬을 활용하여 포털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트롬에서 제공하는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UCINET6 프로그램을 통한 Network 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단어빈도분석, TF-IDF 분석에서는 유사한 단어들 출현하였으나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고, N-gram 분석에서는 단어 출현의 유사점은 있었으나 빈도수와 연쇄적으로 출현되는 단어들의 형태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CONCOR 분석결과, 연도별로 다른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관점 변화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한 미혼모 정책,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 없는 임신, 출산, 양육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로 포용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Network분석, CONCOR분석, 미혼모

Abstrac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big data from 1995 to 2020, focusing on the keywords "unwed mother", "single mother," and "single mom" to present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policy dire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perspectives on unwed mothers. Big data collection platform Textom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portal search sites Naver and Daum and refine data. The final refined data were wor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an N-gram analysis provided by Textom. In addition,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e UCINET6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similar words appeared in word frequency analysis and TF-IDF analysis, but they differed by year. In the N-gram analysis, there were similarities in word appearance, bu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form of words appearing in series. As a result of CONC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different clusters were formed by year. This study confirms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unwed mothers through big data analysis, suggests the need for unwed mothers policies for various options for independent women, and policies that embrace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without discrimination within the new family form.

Key Words : Big Data, Text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COR Analysis, Unwed Mother

*This article is extended from the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ICCT2021.

[†]Corresponding Author : Boksun Jun(Boksun.Jun87@gmail.com)

Received August 17, 2021

Revised December 3,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미혼모’라는 단어는 과거로부터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에 대한 부계 혈연 중심 사고로 “혼혈아들은 일반 어린이들에 비해 동적인 대륙성 기질을 가지고 있어 활발하고 명랑”[1] 하다면서 모든 혼혈아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2]. 이러한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주도하에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미혼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이후, 근대에 와서는 순결-결혼-출산이 정상적 과정으로 교육되었고, 여성들은 결혼 외의 다른 삶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2]. 당시 ‘순결’을 포장하기 위해 “일부 유명 산부인과에는 처녀의 표지를 재생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3] 풍속을 나오며 미혼모 여성들의 도덕성을 심판하여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미혼모들은 ‘정상적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입양을 선택하며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화 속에서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이슈화되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4]. 이렇듯 사회의 변화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바꾸고 있다. 관점을 바꾸면 시각이 변하고 그 결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하여 현실에서 적절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미혼모의 현황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는 각각 20,572명과 6,673명으로 미혼모가 월등하게 많다[5].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혼모의 경우 20세 미만은 231명, 30세 미만은 4,070명인 반면, 미혼부의 경우 20세 미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30세 미만도 444명으로 미혼모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미혼모·부 아동은 2006년의 33.5%에 비해 2016년에는 18.6%로 14.9% 감소하였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아동인구의 감소, 요보호아동수의 감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 이때 혼외 출생아는 2000년

이후 여전히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요보호 아동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과거보다 미혼모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위해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위탁 보호하는 사례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때 미혼모·부가 과거보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특징이다.

2.2 미혼모 지원정책

과거 한국사회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별도 형태의 지원이 아닌 요보호 여성에 대한 포괄적 정책에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 기아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자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원의 개소(1952년)에서부터 미혼모 가족에 대한 현대적 정책개입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7]. 이러한 시설보호는 한국 모자복지의 핵심정책으로 1970~80년대까지 유지됐는데, 사업의 책임과 주체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체계적 지원의 한계는 비교적 명확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모자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2002년에는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공적 지원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 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나친 포괄성의 측면은 양육미혼모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8, 9]가 있다. 이렇듯 최근 미혼모 가족에 대해 여전히 협소하고 선별적인 공적 지원의 한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적 변화의 흐름은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강조로 미혼모 자녀에 대하여 입양보다는 친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의미 있다.

2.3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는 단지 거대한 것이 아닌 순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관리나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10].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크기이다. 최근에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데이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가능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료 분석의 방법, 형태, 규모가 달라진 점이다. 세 번째로는 빠른 속도인데, 데이터가 만들어진 후 활용되는 소요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해 오던 기획, 조사, 수집, 분석이라는 자료 분석 순서과정의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점이다[10].

2.4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단어 간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도 인간의 언어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들은 인공지능, 전산기술 발달 등과 함께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1].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의 또 다른 분석 중 하나인 데이터 마이닝과는 차이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형화된 수치이지만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가 분석 대상이다. 또한, 많은 데이터 속에서 추세나 유형을 찾는 것이 목적인 데이터 마이닝[12]과 달리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13].

2.5 N-gram

N-gram은 하나의 단어가 아닌 연관 되어 나오는

단어까지 포함한 것이다. N-gram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단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 한다. 예를 들어, 'recovery'란 단어는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sluggish'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 recovery는 긍정적인 의미의 회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luggish recovery'는 지지 부진한 경제회복으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14].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로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11].

2.6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에 기인하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적용한 것이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연결망 분석의 하나인 의미연결망 분석을 사용한다[15].

텍스트 안에서 메시지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했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에 대한 일정한 형태들을 찾아내어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관계의 형태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내용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방법이다[16,17].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키워드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를 중심

Table 1. Annual Collecting Data

1995~2005			2006~2015			2016~2020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Channel	Section	Collection amount
NAVER	Web	9,347	NAVER	Web	11,997	NAVER	Web	12,000
	Blog	383		Blog	3,727		Blog	6,978
	News	1,765		News	6,600		News	7,805
	Cafe	851		Cafe	4,656		Cafe	5,671
	Intellectual	62		Intellectual	114		Intellectual	100
	Professional resources	2,542		Professional resources	2,542		Professional resources	2,542
Daum	Web	52	Daum	Web	5,260	Daum	Web	9,057
	Blog	2,816		Blog	8,417		Blog	8,802
	News	433		News	5,676		News	7,465
	Cafe	5,613		Cafe	9,081		Cafe	7,269
Total		23,864	Total		58,070	Total		67,689

으로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텍스트(textom)을 활용하여 2021년 2월 3일~2021년 2월 6일 동안 포털검색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 ‘정책’, ‘관점’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이버에서는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정보 전체, 다음에서는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섹션을 분석 채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 기간은 199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 2006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10년), 2016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12월 31일(5년)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기간 선정에서 1995년~2005년까지는 2002년의 미혼부의 부양책임 입법화[18], 2005년의 호주제의헌법 불합치 판결[19],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입양특례법 개정 등의 다양한 친미혼모 관련 정책들이 나오게 된 시점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2006년~2015년까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2차[20,21] 진행된 2015년까지, 그리고 최근 동향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2016년~2020년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량은 1995년~2005년까지 23,864건, 2006년~2015년까지 58,070건, 2016년~2020년까지 67,689건으로 총 149,623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2 분석절차 및 방법

본 연구 분석절차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채널에서 웹 문서,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정보 섹션을 통하여 키워드 ‘미혼모’, ‘비혼모’, ‘싱글맘’을 중심

으로 ‘지원’, ‘정책’, ‘관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정제된 데이터는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거나 띄어쓰기 정리, 그리고 유사한 단어들을 통일시켰다. 최종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텍스트(textom)’에서 제공하는 단어 빈도분석, 빈도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 TF-IDF 분석, 단어에 n개의 단어를 조합한 N-gram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UCINET6 프로그램을 통해 Network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키워드 빈도분석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미혼모’, ‘비혼모’, ‘싱글맘’ 데이터는 정제과정을 통해 출현 된 빈도가 높은 단어들 상위 40개를 추출하였다. 단어빈도분석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키워드가 1995년~2020년까지 모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미혼모와 관련된 주변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록에서는 1위인 미혼모 키워드를 제외하고, 2위부터 나열하였다.

TF-IDF 분석은 TF(Term Frequency, 단어빈도)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문서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Table 2. Annual Word Frequency and TF-IDF Frequency

Rank	1995~2005				2006~2015				2016~2020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TF-IDF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Word	Frequency
1	Female	11414	Family	18970	Society	15178	Unwed Mother	38901	Family	17049	Unwed Mother	36369
2	Family	10319	Female	18805	Female	14972	Family	30490	Society	14284	Family	33221
3	Kid	7252	Home	13164	Family	14970	Female	28649	Female	12581	Sayuri	28756
4	Society	7066	Unwed Mother	12528	Welfare	12538	Welfare	26210	Child Birth	11753	Female	25812
5	Home	6316	Kid	12009	Kid	11165	Society	25863	Parents	11592	Society	25746
6	Welfare	5350	Society	11926	Parents	10981	Parents	25168	Sayuri	11528	Parents	24890
7	Facility	4001	Welfare	11361	Home	9104	Kid	22205	Korea	10845	Child Birth	24664

4.1.1 빈도분석

1995년~2005년, 2006년~2015년, 2016년~2020년까지의 연도별 단어빈도, TF-IDF 빈도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1995년~2005년의 단어빈도 상위 5개는 여성(1141), 가족(10319), 아이(7252), 사회(7066), 가정(6316), TF-IDF 빈도는 가족(18970), 여성(18805), 가정(13164), 미혼모(12528), 아이(12009)로 나타났다. 2006년~2015년의 단어빈도 상위 5개는 사회(15178), 여성(14972), 가족(14970), 복지(12538), 아이(11165), TF-IDF 빈도는 미혼모(38901), 가족(30490), 여성(28649), 복지(26210), 사회(25863)로 나타났다. 2016년~2020년의 상위 5개 단어빈도는 가족(17049), 사회(14284), 여성(12581), 출산(11753), 부모(11592), TF-IDF 빈도 미혼모(36369), 가족(33221), 사유리(28756), 여성(25812), 사회(25746)로 나타났다.

4.1.2 키워드 클라우드

텍스트(Textom)을 이용하여 분석한 단어빈도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키워드 클라우드를 Fig. 1과 같이 나타냈다. 높은 빈도수에 단어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1995년~2005년에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은 여성, 가족, 아이, 사회, 가정, 복지, 시설 등의 순이다. 2006년~2015년의 빈도수 높은 키워드는 사회, 여성, 가족, 복지, 아이, 부모, 가정 등의 순서이며, 2016년~2020년의 빈도수 높은 키워드 순서는 가족, 사회, 여성, 출산, 부모, 사유리, 한국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4.1.3 N-gram 분석

N-gram 분석결과 1995년~2005년의 상위 5개는 사회/복지(1761), 미혼모/아이(1299), 여성/가족(1004), 부모/가정(955), 양육/미혼모(823), 2006년~2015년에는 사회/복지(3614), 부모/가족(2476), 부모/가정(2349), 미혼모/시설(2101), 여성/가족(1512), 2016년~2020년은 부모/가족(3093), 한국/경제(2606), 사회/복지(2577), 여성/가족(2144), 부모/가정(1927) 상위 5개로 나타났다.

N-gram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빈도수가 높게 나올수록 화살표가 굵게 표시되고, 화살표의 방향이 A → B일 경우, A가 나타났을 때 높은 빈도로 B가 연쇄적

으로 출현함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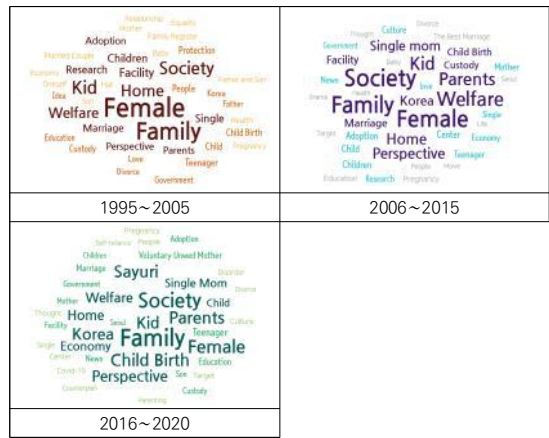


Fig. 1. Annual Keyword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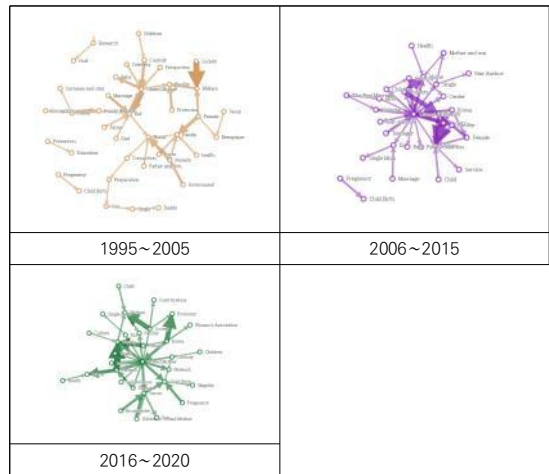


Fig. 2. Annual N-gram Analysis

4.2 네트워크 분석

빈도분석의 상위 40개를 통해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하여 연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UCINET6와 Net Draw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1995년~2005년까지는 ‘여성’, ‘가족’, ‘사회’, ‘복지’, ‘시설’, ‘미혼모’, ‘아이’ 등 간에 노드들의 연결 강도가 높았고, 2006년~2015년까지는 ‘여성’, ‘사회’, ‘가족’, ‘복지’, ‘부모’, ‘미혼모’ 등 간의 연결 강도가 높았다. 2016년~2020년에는 ‘미혼모’, ‘아이’, ‘가족’, ‘출산’, ‘사회’, ‘여성’ 등의 노드 연결 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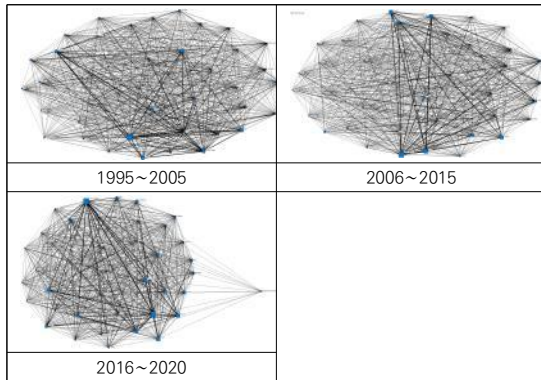


Fig. 3. Annual Network Analysis Results

4.3 CONCOR 분석

CONCOR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각각 몇 가지 군집으로 Fig. 4와 같이 묶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95년~2005년은 Table 3, 2006년~2015년은 Table 4, 2016년~2020년은 Table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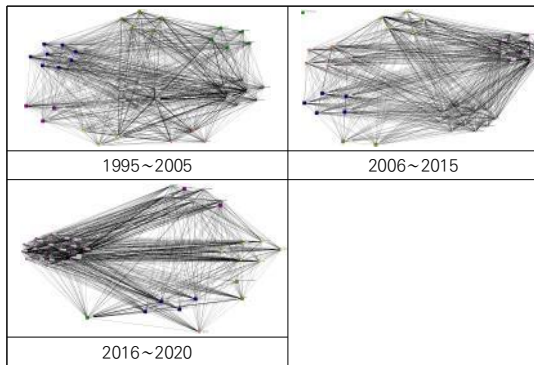


Fig. 4. Annual CONCOR Analysis Results

연도별로 CONCOR 분석 차이를 살펴보면, 1995년~2005년에는 8가지 군집으로 묶였다. 상위 군집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생각’, ‘사람’, ‘엄마’, ‘사랑’, ‘입양’, ‘임신’, ‘아기’, ‘양육’, 두 번째는 ‘아버지’, ‘자신’, ‘호적’, 세 번째는 ‘보호’, ‘시설’, ‘모자’, ‘복지’, ‘부자’였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미혼모로서 아이를 입양할지, 양육할지, 시설에 입소할지 등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는 호적을 아이 아버지에게 뒤야 했기에 이러한 단어들이 군집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006년~2015년 첫 번째는 ‘엄마’, ‘결혼’, ‘사람’, ‘사랑’, ‘아기’, 두 번째 군집은 ‘드라마’, ‘싱글맘’, 세 번째 군집은 ‘최고결혼’이었다.

이 시기에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섯 번째 군집과 여섯 번째 군집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입양특별법 개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 2차가 진행되었던 때이다. 2016년~2020년대의 상위 군집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생각’, ‘사람’, 두 번째로는 ‘출산’, ‘결혼’, ‘임신’, ‘엄마’, 세 번째는 ‘자발적 미혼모’, ‘아들’이다. 참고로 2020년에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여 아이를 출산한 이슈로 인한 영향이 2016년~2020년 시기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Table 3. Group of 1995~2005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r	Node
1	Idea, People, Mother, Love, Adoption, Pregnancy, Baby, Custody
2	Father, Family register, Oneself
3	Protection, Facility, Mother and Son, Welfare, Father and Son
4	Economy, Teenager, Research, Society, Child
5	Parents, Divorce, Kid
6	Home, Single, Government
7	Unwed mother, Korea, Equality, Female, Child Birth, Education, Health
8	Marriage, Perspective, Family, Children, Parents, Relationship

Table 4. Group of 2006~2015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r	Node
1	Mother, Marriage, People, Love, Baby
2	Single mom
3	The Best Marriage
4	Education, News, Seoul, Korea, Economy
5	Life, Welfare, Society, Disorder, Child
6	Perspective, Target, Adoption, Child birth, Custody, Kid, Single, Facility, Government, Research, Pregnancy
7	Home, Family, Female, Teenager, Parents, Children, Culture, Unwed mother, Divorce, Health, Center

Table 5. Group of 2016~2020 CONCOR Analysis Results

Cluster	Node
1	Thought, People
2	Child birth, Marriage, Pregnancy, Mother
3	Voluntary Unwed mother, Son
4	Sayuri
5	Economy, Korea, News, Education, Seoul, Covid-19
6	Welfare, Perspective, Society, Disorder
7	Single mom
8	Female, Home, Family, Research, Custody, Culture, Parents, Divorce, Single, Facility, Unwed mother, Government, Target, Center, Adoption, Children, Self-reliance, Teenager, Kid

그래서 하위 군집들까지 살펴보면, ‘여성’, ‘가정’, ‘가족’, ‘연구’, ‘양육’, ‘문화’, ‘정부’, ‘자립’ 등의 군집들을 이룬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자립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졌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들을 탐색해 보았다. 미혼모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때를 바탕으로 1995년~2005년, 2006년~2015년, 2016년~2020년으로 나눈 후, 빈도분석, TF-IDF 분석, N-gram 분석,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에서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시대별로 유사점은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IDF 빈도분석 결과, 상위에서 ‘가족’, ‘여성’, ‘미혼모’, ‘사회’라는 키워드들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분석 역시도 각 연도별 유사점은 있었으나 몇 가지 다른 단어들도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었다.

N-gram 분석결과, 연도별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유사점들은 있었지만, 각 단어의 빈도수와 연속적으로 출현 되는 단어들의 형태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CONCOR 분석결과, 연도별로 다른 군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군집 순서를 정리할 때, 빈도수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는데, 연도별로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던 인물이나 드라마 등의 사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27일~

2014년 12월 27일까지 총 16부작으로 제작된 조선TV의 드라마 ‘최고의 결혼’이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드라마 내용은 자발적 비혼모가 된 주인공 역할의 아나운서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써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 없던 ‘비혼모’ 개념이었기에, 2006년~2015년 기간의 군집을 형성 하는데 ‘최고의 결혼’드라마 관련 키워드들이 상당히 연관 되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하였으나 연구 기간 설정을 빅데이터 활용이 높지 않았던 시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회를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의 중요 키워드를 ‘미혼모’, ‘싱글맘’, ‘비혼모’로 정하였으나 이 키워드들은 시대별로 사용 되고, 출현 된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해 시대별 관점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최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자발적 미혼모,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가족, 사회 등의 단어들 출현은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시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제3차 정책이 나왔고, 이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1년~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정책 내용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및 관점을 가지고 ‘비혼 가족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다[22]. 예를 들어 2020년 차별 금지법안 발의하거나 2021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혼모 또한 안정적 양육환경 도모를 꾀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파생된 정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관점 변화와 더불어 과거의 선도적 목적(부모와 아이가 있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정상 가족 형태이므로 국가가 입양을 권장했던 사회)을 위한 미혼모 정책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한 미혼모 정책, 그리고 그에 맞는 차별 없는 임신, 출산, 양육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 내로 포용 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y occupational white paper(11) A Mother of 17 siblings (1955. 10. 10). *Dong-a Ilbo*.
- [2] H. J. Kwon. (2019). *The Invention of Unwed Mothers: A History of Exiled Mothers in Modern Korea*. Incheon:Antonia's.
- [3] D. H. Kwak. (1985. 1. 16). Dae-hee Kwak's column<74>, Hymen. *Maeil Business Newspaper*.
- [4] H. H. Jo. (2021. 4. 27). *Start of social discussion...: Unmarried family members are also social acknowledgement*. MBC. [Online].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1400_34873.html.
- [5] KOSIS. (2021).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Korea. [Online] <https://kosis.kr>
- [6] KOSIS (2018). KOSTAT Statistic Plus. Sejong:D.Y.Song.
- [7] S. H. Choi. & Y. R. Oh. (2009). *Welfare for Women*. Paju:Knowledge Community.
- [8] Z. I. Yi. (2012). Human Rights of Unwedded Mothers and Legal Policies.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64, 139-171.
- [9] H. Y. Kim. (2013).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Gender and Culture*, 6(1), 7-14.
- [10] S. B. Chae, S. H. Ahn & S. I. Jung. (2012). Big Data: The epicenter of industrial perception fluctuations, *CEO Information*. 2012. May. 2th. Vol. 851.
- [11] H. R. Kim, I. K. Jeon. (2018). Analysis of leisure activity keywords using text mining.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2(3), 59-69.
- [12] U. M. Fayyad, G. Piatetsky-Shapiro, P. Smyth & R. Uthrusamy. (1996). Advances in knowledge Discovery & Data Mining. *AAAI_MIT*.
- [13] M. Hearst, (1999). Untangling Text Data Mining, in the Proceedings of ACL'99: the 37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University of Maryland, June 20-26.
- [14] Y. Lee, S. Kim & K. Y. Park. (2019a), Deciphering Monetary Policy Committee Minutes with Text Mining Approach: A Case of Korea, *Kore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15] J. H. Lee, J. M. Lee & Y. S. Jang. (2017.12.). Analysis of 2018 PyeongChang Olympic keywords using social network big data analysis.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22(6), 73-89.
- [16] M. K. Cha. (2015).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Arts management" in Newspaper Articles - From 1990 to 2014.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9(34), 168-201. DOI : 10.16937/jcp.29.2.201508.168
- [17] G. J. Han. (2003). The Meaning and Research Agenda in Network Analysis as Social Science Methodology -based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10(2), 219-235.
- [18] H. S. Byun & E. H. Jo. (2003). *A Study on the Issues of Various Family Appearance and the Direction of Family-Related Act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9] Womenlink. (2006. 8. 22). *Comment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against the family headship system Constitution*. Womenlink. [Online]. <https://www.womenlink.or.kr/archives/1216>
- [20]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2006-2010 1s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Sejong: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2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0). *2011-2015 2n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Sejong: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2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2016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al Policy*.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 동 희(Donghee Seo)

[정회원]



- 1995년 2월 : 상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1년 12월 :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사회정책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복지정책, 사회정책, 행정학
- E-Mail : dseokr@kkot.ac.kr

전 복 선(Boksun Jun)

[정회원]



- 2016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사회복지학 석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복지정책, 여성정책
- E-Mail : Boksun.Jun87@gmail.com